

2022 VOL. 96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뉴스레터입니다.

www.cyber.ms.kr | www.cyber.hs.kr

U-방송통신중·고등학교 -반딧불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목 차 |

01

특별기고

여러분 생애에 단 한 번 뿐인 학교생활을 응원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 김경애 본부장」 5

학문과 낭만이 항상 여러분 곁에 공존하는
학교생활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강릉중학교 교장, 전국방송통신중학교 교장협의회 회장 조규전 교장」 7

배우는 자의 고통은 잠시지만 못 배운 자의 서러움은 영원하다.

「마산고등학교 교장, 전국방송통신고등학교 교장협의회 회장 임채환 교장」 9

02

꿈이 영그는 현장

학교 활동 소개 13

「전남여고」 5월의 어느 멋진 날 • 김순례 기자 13

「주성중」 주성중학교 임원진이 꿈꾸는 우리 학교 • 유정숙 기자 17

「대전여고」 희망을 전해주는 대전여고 행복 봉사단 • 박영범 기자 19

「광주북성중」 새 학기 시작, 그리고 후배가 생겼어요 • 최지숙 기자 21

「구월여중」 팬데믹에 빗장을 열고 • 임영실 기자 23

「목포중앙여중」 아직은 청춘! 힘차게 뛰어보세요! • 김이화 기자 25

「원주고」 원주방송고 춘계 체육대회 스케치 • 박상숙 기자 27

「수성고」 수성고등학교의 자랑 성우제 • 이양선 기자 30

「강릉중」 우리 학교의 등교일! 구경하러오세요 • 김이안 기자 34

「황지고」 우리의 두 번째 소원 • 김명숙 기자 36

「동래고」 예쁜 마음, 동래고등학교 • 조광흠 기자 38



03

아름다운 만남



반갑대! 친구야	40
「원주중」 우리 학교 학생회장님을 소개합니다. • 김순자 기자	40
「원주고」 우리는 올케, 시누이 사이 • 박상숙 기자	43
「원주중」 초등검정고시부터 방송중까지! • 김순자 기자	47
「동래고」 배움이 주는 기쁨 • 조광흠 기자	50
사랑해요! 선생님	53
「원주고」 문학을 사랑하는 소년과 방송고의 만남 • 박상숙 기자	53
「주성중」 감사했습니다. 강은구 교무부장선생님 • 유정숙 기자	57
「춘천고」 우리 학교의 자랑 배인매 선생님을 만나다 • 최동순 기자	60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63
강원도 교육의 자랑 신경호 교육감님을 만나다 • 최동순 기자	63

04

우리들의 이야기



시	66
「전주여고」 한 송이 수선화 • 민경자 기자	66
「홍성고」 여기는 홍성고 • 이경옥 학생	67
「동래고」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손병도 학생	68
「동래고」 학교 • 장재선 학생	69
수필	70
「춘천고」 산골짜기 소년 목동의 꿈 • 최동순 기자	70
「홍성고」 다시 만날 약속 • 김배숙 기자	73
「동래고」 내 꿈은 익어가고 있다 • 민영조 학생	75
「청주고」 여름밤의 추억 • 조순희 학생	76
서예	78
「원주중」 서예 • 김형규 학생	78

05

센터 소식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 소식	79
-----------------------------------	-----------

01

특별기고

여러분 생애에 단 한번 뿐인 학교생활을 응원합니다.-----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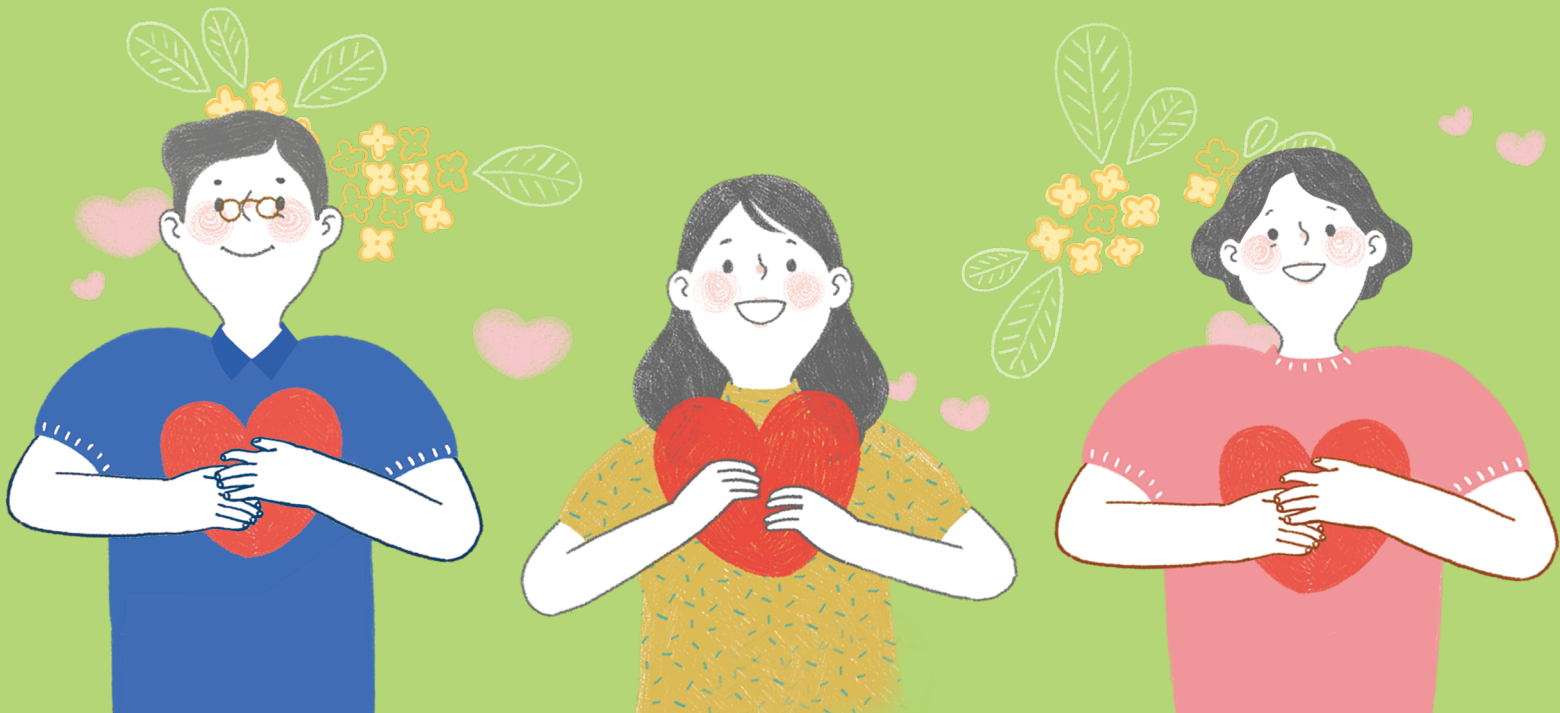
-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 김경애 본부장

학문과 낭만이 항상 여러분 곁에 공존하는
학교생활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 07

- 강릉중학교 교장, 전국방송통신중학교 교장협의회 회장 조규전 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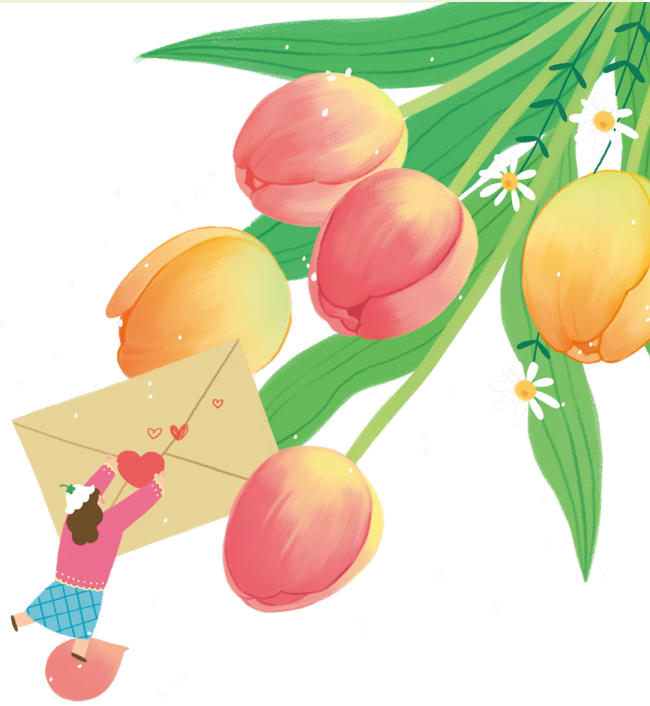
배우는 자의 고통은 잠시지만
못 배운 자의 서러움은 영원하다. ----- 09

- 마산고등학교 교장, 전국방송통신고등학교 교장협의회 회장 임채환 교장



여러분 생애에 단 한 번뿐인 학교생활을 응원합니다.

김 경 애 |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 본부장



전국의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향기로운 봄 내음이 가득했던 3월, 비록 세월은 많이 흘러버렸지만,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첫 등교일을 기다렸을 여러분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니 그날의 설렘과 감동이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배움의 열정과 함께 시작된 여러분의 일상도 어느덧 한 학기를 정리하고 새로운 학기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학기 동안의 학교생활은 어떠셨나요?

그래도 올해 1학기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그동안 미뤘었던 체육대회나 체험학습, 각종 행사가 조금씩 진행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새삼 소중함을 느끼게 된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마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그리웠던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새로운 배움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행복감을 발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름방학이 끝나고 시작되는 2학기에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 열리는 다양한 기회들을 통해 많은 추억을 쌓으실 수 있기를 고대해 봅니다.



이번 뉴스레터 ‘U-반딧불’ 96호의 발간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분이 참여하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꿈에 그리던 학교생활 가운데 배움을 위해 쉼 없이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담긴 전국 각지의 학생기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꿈을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긍정과 행복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방송통신중학교가 개교 10주년을, 2024년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개교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없었던 환경 속에서도 배움의 꿈을 잃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했던 우리 학생분들이 계셔주었기에 지금의 방송통신중·고등학교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생업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원격수업을 듣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에 학생 여러분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더욱 존경스러워집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교육계는 디지털 전환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방송통신중·고등학교가 미래형 학교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데 참조가 되는 선도형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가 보다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문성을 발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애의 단 한 번뿐인 2022년 2학기 학교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문과 낭만이 항상 여러분 곁에 공존하는 학교생활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조 규 전 | 강릉중학교 교장, 전국 방송통신중학교 교장협의회 회장



전국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릉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장 조규전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지면을 통해서 만나 뵈게 된 것은 저에게 큰 영광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부모님과 첫 만남을 시작으로 길다면 긴, 짧다면 짧은 인생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출발한 인생 여정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때에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과 다양한 만남을 통해 각자만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바뀌게 됩니다. 다양한 만남을 통해 인생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지면을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는 것도 제 인생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인연 중에 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까이에서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것보다 지면을 통해 만나는 것이 현실성은 좀 떨어지겠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 여러분을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도 나름의 큰 의미가 있으리라 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매체, 방법을 통해 만난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학교생활은 기본적으로 학생 여러분들과 교사와의 만남을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학급 친구들과 운명적인 만남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지요. 교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학문과 지식, 지혜의 세계를 넓힐 수 있을 것이고,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사회성과 우정도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얻는 배움이 좀 더 가치 있기 위해선 학교생활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쳐주는 지식이나 지혜를 그냥 수용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응용하여 나의 인생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서 배운다면 그 과정이 더 절실하게 가슴에 와닿으리라 봅니다. 관행에서 벗어나 생각의 영역을 조금만 더 열어준다면 훨씬 더 짜릿한 수업과 풍성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큰 용기를 내어 학교에 오신 만큼 학교에서 얻는 배움에 만족하는 그 자체도 좋지만,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세계를 볼 수 있는 혜안을 갖는 것 또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한 학교생활이 아니라, 배움이 우리의 일상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공자의 말씀 중에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배우고 수시로 익히면 기쁘지 않겠는가)”를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면 여러분의 학교생활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전개되리라 봅니다. 학문과 낭만이 항상 여러분 곁에 공존하는 학교생활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배우는 자의 고통은 잠시지만 못 배운 자의 서러움은 영원하다.

임채환 | 마산고등학교 교장,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장협의회 회장



전국의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산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장 임채환입니다.

영어 격언에 ‘Life is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인생이란 출생에서 요람까지 선택의 과정이다’라는 말이죠. 즉 매 순간 우리의 선택은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방송중, 방송고 입학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택한 결정 중 가장 잘한 것입니다.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값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들의 자긍심을 세워줄 수 있는 행운의 초이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공부를 먼저 하고 직업을 구했고, 여러분은 직업을 먼저 구하고 지금 공부하고 계십니다. 순서만 바뀌었을 뿐 똑같습니다. 어떤 순서가 맞다 틀리다 할 것 없이,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고 졸업반 담임을 맡았던 1998년 그 당시 졸업생들은 졸업 후 동창회를 만들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모임의 총무가 “선생님 우리 모임의 이름을 하나 지어주시겠습니까?”라고

요청하길래, 동창회에 학생이 12명이라 ‘열둘회’로 할까? 라고 하다가 ‘1%’로 하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총무가 ‘1%’가 무슨 뜻이냐고 묻길래, “여러분이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년이 지나 여러분을 보니, 1% 이내에 들어 이 사회를 이끌고 계시기에 그렇게 명패를 붙이게 되었습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적다 보니, 한 학생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께도 이 학생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9형제 다복한 집안에 태어난 이 학생은 중학교 교육이면 충분히 배웠다는 부모님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꽃꽂이, 스포츠 등 다양한 배움의 문을 두드리 보았지만, 가슴속엔 중학교 교육밖에 배우지 못했다는 한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한번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아들과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함께 풀다가 사전을 뒤적이니, 아들이 ‘지섭이는 참 좋겠다. 엄마 아빠 모두 대학에 나와서! 그 애 엄마 아빠는 공부를 잘해서 과제도 사전 안 보고 할 거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배움의 목마름에 갈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나 달고 다녀야 했던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과 취직을 해보려고 이력서를 쓸 때마다 가슴 졸였던 시간을 이젠 지우고 싶었던 이 학생은 당당하게 방송고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학식 날 남편은 나이 많은 아내가 위축될까 따라나섰고 아들은 “어머니 용기 잃지 마세요.”라고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반듯이 써준 이름이 적힌 교과서를 받아 든 순간 울컥한 이 학생은 ‘학력 때문에 음지에서 움츠려야만 했던 지난날의 아픔을 딛고, 정상에 올라 비상하는 학처럼 힘차게 날개를 펴고 높이 날아갈 거야.’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벌써 이 학생은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보내지 못해 그렇게 슬퍼하시던 아버지, 어머니에게 당당한 졸업장을 들고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던 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분명, '우리 딸 정말 장하구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우 여러분 이제 여러분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의 딱지를 떼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는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또 2년 뒤에는 석사, 3년 뒤에는 박사가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배우는 자의 고통은 잠시지만, 못 배운 자의 서러움은 영원합니다.' 꼭 잊지 마시고 지금 많이 힘들더라도 끝까지 완주하여 영광의 졸업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도전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02

꿈이 영그는 현장

학교 활동 소개 ----- 13



5월의 어느 멋진 날

김순례 | 전남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중·고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우분들이 그토록 꿈꿔왔던 학교생활의 시작도 어느덧 5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학교에 출석하여 공부하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며 학창 시절을 만끽했던 것도 잠시, 늦깎이 나이에 마주하게 된 중간고사라는 큰 산을 넘기고 돌아보니 어느덧 산천의 모습이 진녹색으로 변해 풍성함을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의 등갯길에 차례지어 피워주는 꽃들과 싱그러움을 더해주는 가로수들을 보고 있으니 제 마음을 한 층 더 부풀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5월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남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의 터널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가면서 그

지겹던 마스크도 실외에서는 벗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조심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할 것 같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방송중·고 학우 여러분들도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이어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제가 다니고 있는 전남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하루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평소 학교에 출석하는 날에는 다른 학우들보다 일찍 등갯길에 오릅니다. 빨리 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도 앞서기도 하고, 아름다운 우리 학교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눈에 담아보고 싶은 생각에 서둘러 학교에 등교하는 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학교에 아침마다 교통정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참여해 보고 싶은 마음에 직접 자원하여 이번 출석수업 일에는 교통정리 봉사활동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평소 일찍 등교하기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보다 더 일찍 나와 학우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하여 교통정리 활동을 하시는 임원진 학우님들의 모습을 보니 감사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또한, 항상 밝은 모습으로 맞이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정리 봉사활동을 위해 애써주시는 임원진 학우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방송중·고의 학우분들은 대부분이 학령기에 이루지 못한 학업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학교에 입학하여 학우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정말 저마다의

다양한 사정과 사유로 인하여 학교에 다니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많은 공감과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이런 배움의 갈증을 느끼고 계시기에 지금 우리가 받는 교육과 수업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열정 넘치는 우리 학우님들은 이렇게 수업을 받고 계십니다.

과거 우리의 학창 시절 그리고, 지금의 학교생활을 생각해 보면 참 많은 것들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변치 않는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학교생활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은 언제



일까요? 아마도 많은 분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실 한 가지가 있을 텐데요, 바로 점심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우님들도 공감하시나요? 과거에는 도시락을 싸서 친구들과 모여 즐겁게 점심시간을 보내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감사하게도 무상 급식 혜택을 통해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석수업일마다 제공해주시는 맛있고 따뜻한 점심을 통하여 과거 우리들의 추억이 담긴 점심시간 그 이상의 감사함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심 시간에도 배식 봉사 학우님들이 음식 배급을 도와주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있어주시기에 우리가 늘 기다려온 이 시간이 더욱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은 창의적 체험학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참여하고 있는 컬러링 동아리 활동의 모습을 소개하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동아리 활동 중 컬러링 동아리 활동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과거 동심의 시기로 돌아가 밑그림에 색연필 등을 사용하여 색을 칠하고 있다면, 그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 고민 없이 바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학교생활을 하며 창의적 체험학습 시간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으면, 과거의 저로 돌아가 소녀의 감성을 만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아리 시간에 열심히 작품을 만들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어때신가요? 그리고 최종 완성작도 보여드립니다. 저희의 동심과 감성이 느껴지시나요?



늦은 나이에 배움의 꿈을 가지고 학교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이 있다면, 국어, 영어, 수학처럼 주요 과목을 공부해 나갈 자신이 없다는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배움이란 국어, 영어, 수학, 과학과 같은 과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배움 그 자체의 감사함 그리고 함께하는 학우들, 다양한 활동들 그 자체만으로도 오랜 시간 느꼈던 그 묵은 갈증을 해소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5월의 평범한 날이었을 오늘일지 모르지만, 방송중·고 학우들에게는 꿈이 영어가고 있을, 소중하고 감사한 5월의 어느 멋진 날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주성중학교 임원진이 꿈꾸는 우리 학교

유정숙 | 주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방송중·고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다니고 있는 주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의 임원진과 선생님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점차 완화되면서 다른 학교에서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다양한 학교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 학우 여러분들도 언제나 방역 수칙과 안전에 유의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는 올해도 새로운 1학년 후배 학우님들이 많이 입학하시면서 학급수가 늘어나 1학년과 2학년은 기존 2개 반에서 3개 반으로 1학급씩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런데도 배움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한 학우분들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전교 학생회장님을 포함한 임원진 전체가 모이는 날입니다. 새롭게 입학하신 학우분들을 만나 볼 기회이기도 하고, 주성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의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어떤 날보다도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방송중에 입학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50대 이상의 고연령의 학우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배움에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출석수업일에 등교하시면 누구보다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하시고 그 어렵다는 영어, 수학 수업도 열정을 다해 임하고 계십니다.

올해 주성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로 입학하신 학우님들의 연령대가 지난해에 비하여 낮아졌다고 합니다. 저희가 입학할 시기에는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분들이셨는데 올해는 50대 분들이 많아지셨다고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앞서서 이야기해 드렸지만, 후배 학우님들의 모습을 직접 보니 어딘가 모를 열



주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의
출석수업일에 학생들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선생님 및 임원진분들의 모습입니다.

정과 패기가 더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전교회장 및 부회장, 총무부장, 홍보대사, 예능부장, 학급실장과 부실장, 총무, 임원진들이 함께 식사하며 주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의 발전 방향과 학교생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가 진행되었습니다. 학교생활에 대한 많은 의견을 주고받으며 임원진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던 것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배움을 위하여 모인 학우들에게 그토록 바라왔던 학창 시절의 추억을 조금이나마 더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만들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의 학생들을 위하여 늘 애써주시는 주성중학교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출석수업일 날에는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나와 주시고 반갑게 인사도 건네주시는데, 무엇보다 감사한 점은 항상 밝은 모습으로 미소 지으며 맞이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저도 남은 학교생활을 통하여 주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를 대표하는 임원진으로서 모든 학우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전국의 방송중고 학우분들도 남은 학교생활 잘 보내시길 바라며, 주성중학교의 아침 등갯길에서 만난 선생님과 임원진 분들의 모습을 소개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을 전해주는 대전여고 행복 봉사단

박 영 범 | 대전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오늘 저는 방송중·고 학우 여러분들에게 대전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아주 특별한 봉사단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1학기도 마무리되고 2학기의 시작을 준비하느라 분주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학교 등교일이라는 설레는 마음을 뒤로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시험이란 큰 벽도 어느덧 잘 이겨내고 새로운 학기에 대해 부푼 기대와 때로는 좀 더 노력해보자는 다짐을 하고 있을 여러분들을 생각해보니 저도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준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모두가 낯설고 처음이었을 학교생활에 힘을 주었던 것이 바로 대전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행복 봉사단이었습니다. 과거 오래전 중학교에 다녔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수업을 들어야 하는 방식, 한 달에 두 번 학교에 가는 것들... 그냥 모든 것들이 낯설고 달라져 있었지만, 오로지 학업에 대한 열망과 열정 하나로 시작한 학교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석수업을 위하여 노심초사하며 찾아간 대전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정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는 '행복 봉사단' 분들이었습니다.

방송고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성인 학습자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석수업일에는 각자의 차량을 가지고 등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말 출석수업일이 되면, 학교 안에 주차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데, 봉사단분들께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 차량 안내 봉사를 해주시고 친절하게 안내해주시는 모습에서 깊게 감동하였습니다. 봉사단분들도 각자의 생계를 위하여 다양한 업종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신데, 주말에는 출석수업을 위해 등교하는 학생분들을 위하여 남들보다 일찍 학교에 나와 교통관리 봉사까지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통해 제가 더 많이 배워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대전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행복 봉사단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방송중·고 학우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일화가 있어, 여러분들도



위로와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학교에 입학하고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의 하나가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었습니다. 특히, 영어, 수학과 같은 과목은 수업 시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뒤돌아서기만 하면 다 잊히게 되다 보니 수업을 하루하루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것은 아닌가?’, ‘늦은 나이의 공부는 역시 무리였던 것일까?’라고 의기소침하며 지내던 어느 출석수업일의 등굣길, 여전히 우리 봉사단분들의 밝은 인사가 저를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봉사자 한분 한분이 아침 인사 팻말을 들고 학우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힘내세요~^^”

“열정적인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저 문구가 쓰인 팻말을 들고 밝게 웃어주시는 우리 봉사단분들의 얼굴을 보니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면서 입학할 결심했을 때를 떠올려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 중년이 되었음에도 공부

하고 싶었었는지, 그런 중년의 내가 학업을 통해 진정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니 다시 한 번 힘을 내서 공부를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교과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포기해야 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과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 도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저 자신 스스로가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방송고를 다니는 친구분들이나 지인들에게 여쭙보니 이런 봉사단을 운영하는 학교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고 있는 대전여고의 봉사단 학우분들은 단언컨대 저에게 도전 속에서 큰 위로와 응원을 해주신 최고의 봉사단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와 응원에 힘을 얻어 지금은 대전여고의 학생기자로 선발되어 우리 학우님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우리 학교의 봉사단분들을 저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대전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희망을 전해주는 행복 봉사단”이라고...

새 학기 시작, 그리고 후배가 생겼어요



최지숙 | 광주북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3월은 중학생이 된 저에게 가장 설레는 날이 가장 많은 달입니다. 길었던 겨울방학이 끝나고, 3월의 입학식 날 교문에는 학생들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너의 시작을 응원해! 입학을 축하합니다.’ 현수막에 담긴 환영 인사와 함께, 2022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입학식은 하나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 설레는 마음으로 광주북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에 입학한 제 모습이 생각납니다. 10대 시절 공부하지 못한 한을 평생 가지고 살았다가 몇 년에 걸쳐 공부해야지, 꼭 졸업장을 취득해야지, 말만 하다가 가족들의 응원이 용기가 되어 광주북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설렘과 행복감으로 가득차있었던 제가, 이제는 2학년이 되어 큰 용기를 내어 입학했을 신입생분들을 축하해 주려고 합니다. 야심찬 기대를 가지고 광주복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에 처음 등교하는 후배들! 큰 용기를 내어 학교에 첫발을 옮겼을 모습을 생각하니, 작년 저의 모습 같아 미소가 지어집니다.

신입생 여러분, 입학할 고민했던 저마다 사연들이 벌써 제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어렵게, 뒤늦게 중학교에 입학한 만큼 행복한 추억들 많이 쌓으면서 행복한 중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후배님들! 자랑스러운 복성인이 되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팬데믹에 빛장을 열고

임영실 | 구월여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팬데믹까지... 지난 2년여 동안 우리가 각종 뉴스와 언론에서 가장 많이 접한 단어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충격과 공포를 주며 사람들의 삶에도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기는 하지만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저는 방송중에 입학하던 시기가 코로나19가 한참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학교 교문을 밟을 수 있다는 설렘도 잠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출석수업일 조정, 학교의 각종 행사 취소, 심지어 출석수업일 취소 등으로 한 달에 두 번만 출석하는 것마저 불가능해지는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내가 꿈꿔왔던 학교생활은 이런 것은 아니었는데...”라는 생각과 함께 “하늘마저 나의 절실한 마음을 살피봐 주시지 않는구나”라는 원망이 앞서

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2년 2월쯤에는 일일 확진자가 60만 명으로, ‘일일 확진자 세계 1위’라는 뉴스를 접하니 나의 학교생활에 대한 미련보다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루하루 보내는 것에 대해 감사함이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점차 유행의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2년여간 바뀌어 있던 우리의 삶이 점차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월여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에서도 예전의 삶을 다시 찾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토록 바라왔던 현장 체험학습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기분을 설명한다면, ‘소풍 가기 전날 밤의 기분’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이 기분을 이해하실 수 있나요? 소풍 가기 전날의 설렘과 기대, 학우들과 즐겁게 지낼 생각에 밤을 꼬박 새워도 전혀 피곤함 없이 소풍 그 자체만으로 어린 시절의 나로 돌아간 것만 같은



행복감을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구월여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의 현장체험 학습은 인천대공원에서 개최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인사말과 함께 모두가 한 목소리로 ‘아직은 청춘! 배움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저 문구는 아마 제 인생에서도 잊히지 않을 가장 감동적인 구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구월여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은 시작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해 닫혀 있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힐링프로그램을 함께 했으며,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해 그간 눌러왔던 우리들의 흥과 끼를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유행의 위험이 언제든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현장 체험 학습을 다녀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는 그동안 ‘당연한 일상에 대해 감사함을 몰랐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아무 두려움 없이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를 거닐고 반갑게 인사도 하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그 평범했던 일상의 기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방송중·고의 학우님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그토록 바라왔던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이겨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긴 터널의 끝도 점점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은 학교생활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팬데믹 빗장을 열고, 당연한 것들을 다시 누리는 그날을 기억하며….

아직은 청춘! 힘차게 뛰어보세!

김이화 | 목포중앙여자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5월 14일 토요일 목포중앙여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체육관에서 2022학년도 체육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2016년 개교 이래 매년 봄에 열리는 목포중앙여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체육 한마당은 늦깎이 중학생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똘똘 뭉치는 축제의 장입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잠시 멈췄던 체육대회는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학교 체육대회 행사를 말로만 듣다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체육대회 이전부터 행복한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개막 행사로 우리 학교 타악기 그룹인 '유타'가 흥겨운 타악기 공연을 펼쳤습니다. 신나는 타악기 소리가 체육관을 울리며 정말 체육대회 행사가 실감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어깨도 들썩거리는 것을

보면, 우리 학교 타악기 그룹인 '유타'의 연주 솜씨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유타'의 멋진 연주가 화려하게 막을 내리고, 드디어 2022학년도 체육 한마당이 개최되었습니다.



방송통신중학교 특성상 학생들의 연령층이 다양하고 중·장년층이 많이 재학하고 있으므로 체육대회 종목은 남녀노소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종목이 채택되었습니다. 볼링, 플라잉디스크,



킥러볼 등을 편성하고 자신있는 종목에 자원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은 10대 학생들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고 열띤 응원으로 체육관을 함성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체육대회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는 바로 안전사고였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고 체육대회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에는 반 별 장기자랑이 있었습니다. 각 반 대표 가수들의 흥겹고 구성진 노래와 학생들의 열정적인 춤사위가 함께 어울렸습니다. 50년 세월을 거슬러 청춘으로 돌아간 늦깎이 중학생들의 모습은 잠시 짝한 향수를 느끼면서도 기쁨으로 넘쳤으며, 즐겁고 행복한 체육대회로 기억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딘가 무력했던 학교생활이, 활기가 넘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상 목포중앙여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의 활기 넘치는 체육대회 모습이었습니다.

원주방송고 춘계 체육대회 스케치

박상숙 |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싱그러움이 내려앉은 찬란한 5월!

원주방송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체육대회가 펼쳐졌습니다.

체육대회 날을 맞이한 오늘 아침은 유달리 신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카시아 꽃전을 만들어 학교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엔 아카시아꽃이 주렁주렁 예쁘게 보입니다. 꽃향기가 가슴속에 스며드는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은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체육대회 날이기도 하지만 스승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스승의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조희 시간, 담임 선생님께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가슴에 코르사주를 달아 드렸습니다. 학생들은 다 함께 '스승의 은혜'를 합창하고 담임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생각지도 못했다며 기쁨의 웃음을 터트리셨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담임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기뻐했습니다.

그 후, 전교생은 체육관으로 이동하여 체육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교장선생님의 개회사와 선서를 시작으로 체육대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학생들은 학년에 상관없이 서로를 응원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응원과 함성소리는 어느새 체육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체육 선생님의 진행에 따라 학생들은 각 종목별 4명씩 출전하여 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종목은 남녀 노소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훌라후프 대결을 펼쳤는데 체육관 가득 알록

달록 색색의 훌라후프가 선수들의 허리를 돌며 '좌로! 뒤로! 한 발 들고' 선생님의 주문에 다양한 율동을 하면서 훌라후프를 돌립니다.

다음은 2인 삼각 달리기입니다. 2인 삼각 달리는 발을 묶고 달리는 호흡이 매우 중요한 종목입니다. 호흡이 맞지 않는 학우들은 뛰다가 넘어지기도 하였는데요, 현장은 웃음바다가 되었답니다. 담임 선생님도 종목에 참여하여 학생들과 짝을 이뤄 함께 달렸습니다. 저희 학생들에게는 더 없는 추억을 만들어주셨답니다. 오전 시간 마지막 경기는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팀을 나눠 펼쳐진 족구 경기였답니다. 승부에 상관없이 즐기는 화합의 장이 펼쳐져 즐거움이 가득하였습니다.

한바탕 오전 체육대회 일정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체육대회를 맞이해 학생들은 학교 나무 밑에 모여 함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떡, 과일, 부침개, 치킨 등 학우들이 싸온 음식을 펼쳐놓으니, 푸짐한 한 끼가 되었습니다.

오후 일정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통해 더 유명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진행되었습니다. 움직인 학우들은 총 대신 물총을 맞아 탈락하였습니다. 사진 속 모습이 정말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학년 계주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체육대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계주 경기에는 다양한 미션들을 넣어 많은 학생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계주들은 출발선에서 일 바지를 챙겨 입고 달렸습니다. 중간

지점에는 훌라후프를 돌리고 입구가 좁은 병에 공을 잡아넣어야 하는 어려운 미션들이 있었습니다. 계주들은 미션들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교생들의 많은 환호와 관심 속에 계주들은 경기를 끝마쳤습니다. 1등으로 들어온 학우님도 마지막으로 들어온 학우님도 마지막으로 들어온 학우님도 모두 행복한 얼굴로 결승선을 통과하였습니다.

체육대회는 끝이 났지만,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이 끼를 펼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버스킹 시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끼 있는 학생들이 뿜어내는 울동을 바라보며 배꼽이 빠질 듯 울고 눈물이 찔끔 나도록 깔깔거리며 웃을 수 있었던 순간이었답니다.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춘계체육대회는 폐막식과 함께 늦깎이 학생들의 귀하디귀한 학창 시절 추억 한 페이지를 장식한 꿈의 무대로 수놓았습니다.

꿈의 무대를 펼쳐주신 선생님! 학생자치회 임원진 여러분들! 즐거운 체육대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승의 날 쉬지도 못하고 학생들을 위해 함께하신 교장 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모든 선생님, 학생분들 사랑합니다.

수성고등학교의 자랑 성우제

이 양 선 | 수성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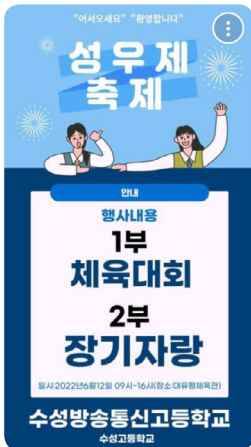


수성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는 매년 교내 큰 행사인 '성우제'가 열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성고등학교의 '성우제'가 열렸습니다. 교내에서 가장 크게 진행되는 행사이기에 학생들이 가진 기대는 남달랐습니다.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학생들은 행사 시작 전부터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성우제'를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부터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까지, 학생기자인 제가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수성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성우제' 여러분들께도 소개하겠습니다.

행사는 본교 강당에서 치러졌기에, 학생들은 강당을 예쁘게 꾸며 행사장을 만들었습니다. 풍선을 하나하나 불고 묶으며 화려한 축제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학생의 지원과 봉사로 성우제가 열릴 수 있었습니다.





‘성우제’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뉜 행사입니다. 1부는 체육대회, 2부는 장기자랑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순서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축제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강당에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올해도 교내 학예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작품들을 전시하였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공부도 잘하지만, 예술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사진 부문에 작품을 내었습니다. 평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여 풍경 사진을 많이 찍곤 하였는데, 교내 학예경연대회에 사진 부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출품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대상이라는 영광적인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채화 서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작품을 출품해 주신 우리 학교 학생들의 작품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교내 학예경연대회에 출품하여 좋은 성적을 받으신 학우님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성우제'의 축제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와 장기 자랑을 맞이하여 학생들은 학년별로 다른 색상의 옷을 입고 강당에 모였습니다. 학년별로 옷을 맞춰 입으니, 체육대회가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전교생이 모인 강당은 빈틈 없이 학생들로 북적거렸습니다. 행복한 학생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행복한 고등학생이 된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체육대회는 다양한 종목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학년별 족구 경기와 하키 경기를 담아봤습니다. 사진만 봐도 열정적인 학우님들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학생들의 승리욕은 강당 전체의 분위기를 압도하였습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는 흥미진진한 경기는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였답니다.

치열한 경기 끝에 1등을 차지하신 학생들의 얼굴은 미소와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우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 자랑의 모습입니다. 흥도 많고 끼도 많은 우리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처음 본 학우님들과도 함께 웃으며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군무는 정말 멋있었습니다. 장기자랑을 준비한 학우님들도 즐겨주신 학우님들도 모두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우제'를 준비하고 좋은 성적을 거둔 학우님들에게 상을 시상하는 것으로 '성우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초청된 내빈분들께서 직접 상을 받아주셔서 기쁨은 2배가 되었습니다.

상을 받으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성우제'는 이렇게 막이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진행된 행사는 선생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학생들의 관심으로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학교의 등교일! 구경하러 오세요

김이안 | 강릉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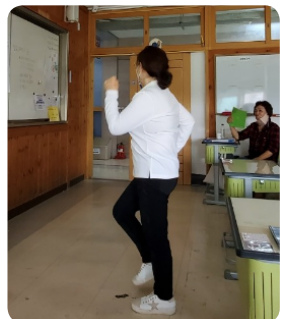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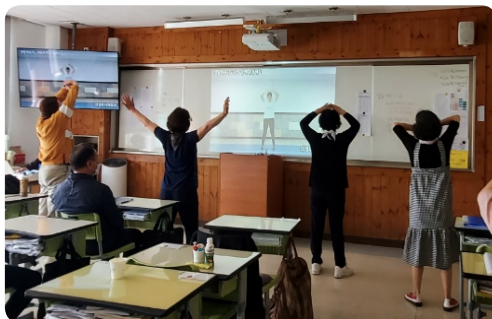


오늘은 한 달에 두 번 있는 강릉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의 출석수업일입니다. 출석수업 전날에는 언제나 설레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등교일 아침 시간입니다. 학생들의 신나는 발걸음을 보면 저 또한 설레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출석수업일에는 체육 수행평가가 있는 아주 긴장되고 중요한 날입니다. 체육 수행평가는 '생활 체육'이라는 종목으로 평가하였는데요, 생소했지만 아주 재미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체육 수행평가를 치르고 있는 저희 반 학생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체육 수행평가는 4명~5명이 한 조가 되어,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두 쉬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체육 수행평가를 준비하였는데 열심히 연습한 결과를 수행평가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지! 긴장된다는 말과는 다르게 동작 하나하나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사진 속 모습이 보이시나요? 한 명도 빠짐없이 칼같이 맞는 동작입니다. 체육 선생님도 열심히 연습해온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한 학생은 혼자서 시험을 보았는데, 떨리는 기색 없이 혼자서도 씩씩하게 외워 온 동작을 기억하며 평가에 임했습니다. 열심히 연습한 시간을 보상이라도 받듯





저희 반 모든 학생은 좋은 점수를 받으며 행복하게 수행평가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체육 수행평가 점수도, 임하는 자세도 모두 A+입니다.

다음 시간은 과학 수업이었습니다. 이번 과학 시간은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직접 캔들을 만들며 실습으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진행되는 실습 시간이어서 그런지 학생들은 이론 수업 때 보다 더욱 열중하며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즐거워하며 캔들을 만드는 학생들을 보니 저 역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왁스를 녹여 예쁜 캔들을 만들 준비를 하었는데요, 물 같은 왁스가 불에 타오르는 예쁜 캔들로 바뀐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작품 어떤가요? 캔들을 만드는 것이 처음이었던 터라 많이 걱정하였지만, 완성작을 모아두니 시중에 파는 캔들과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문구를 새겨 마무리하였습니다. 캔들은 습기가 많은 곳에 피워두면 습기를 없애주는 좋은 효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곧 장마철이 시작되니 이 캔들을 피워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수업이 끝나고 담임 선생님의 인사와 공지사항을 듣는 종례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종례 시간은 저에게 특별한 시간이었는데요, 바로 뉴스레터 'U-반딧불' 제작을 위한 학생기자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임명장을 받으니 정말 학생기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강릉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의 모습을 담아 뉴스레터에 많은 기사를 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을 주신 한국교육개발원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의 출석수업일 모습이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했던 이번 수업도 중학생인 저에겐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다음 출석수업일이 기다려지는 것을 보면, 저희는 모두 행복한 중학생인 것 같습니다. 이상 강릉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학생기자 김이안이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소원

김명숙 | 황지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따뜻한 봄 출석수업일에 황지고등학교 3학년 반에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한 작은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황지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학생들의 소원은 남들처럼 학교에 다니고,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입학을 통해 이 소원을 이루게 되었으니, 두 번째 소원을 이루기 위해 3학년 학생들이 나섰습니다. 학생들이 가진 두 번째 소원은 다 같이 교복을 입고 수업을 들으며 좋은 추억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선생님들도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옛날 교복을 대여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주고, 수업 시간에 교복을 입는 것을 허락해주셨습니다.





학생들의 간절한 바람과 선생님들의 지지로 우리는 6월 18일 출석수업일에 교복을 입고 등교하였습니다. 평소 사복을 입고 등교했었는데, 교복을 입고 등교를 하니 매일 등교했던 이 길도 새롭게 느껴집니다. 처음 입어보는 교복에 몇몇 학우님들은 어색한 듯 옷매무새를 자꾸 정리합니다. 이내 교복이 익숙해진 우리는 본격적으로 교복을 입은 모습을 즐기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미술 시간이 있는 날로, 자신이 꿈꾸는 나의 모습을 그려 채색하였습니다. 교복을 입고 내가 꿈꾸는 나의 모습을 그려보니 기분도 좋고 즐거운 미술 수업이 되었습니다. 그린 그림을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교복을 갖추어 입고 사진을 찍으니 사진도 더욱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절 교실에 온 듯 학생들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이 순간의 행복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꿈으로만 가지고 있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의 하루하루는 제 인생에서 오랫동안 기억될 순간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모두 교복 입고 수업 도전해보심이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정말 행복한 하루를 선물해줄 것입니다.

이상 황지고등학교에서 학생기자 김명숙이었습니다.

예쁜 마음, 동래고등학교

조 광 흠 | 동래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동래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회에서는 5월 24일 지역 관내에 홀로 살고 계시는 독거노인을 찾아뵙고 생신을 기념하는 축하연을 뒀습니다.

출석수업일도 아닌 날에 오로지 봉사 활동을 위해 모인 동래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어찌 이렇게 마음이 예쁘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따뜻한 동래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회 학우님들을 따라 봉사 활동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찾아뵙고 온 독거어르신들은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어서 생일날에 외롭게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학생회에서는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조출하지만 예쁜 마음을 담아 생일을 축하드리러 갔습니다. 어르신들의 자녀들은 모두 타지에 있거나 직장생활하고 있어

생일 축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자녀들보다는 못하지만, 마음을 담아 저희가 나섰습니다!

사진 속 모습처럼 조출하지만 다양한 음식들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케이크와 다양한 과일 그리고 꽃까지, 어르신들은 생각지도 못한 저희의 깜짝 방문에 내심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저희 방문에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 어르신들, '집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게 얼마 만인지...' 이라며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자주 찾아보면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기쁨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 모두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고 오래 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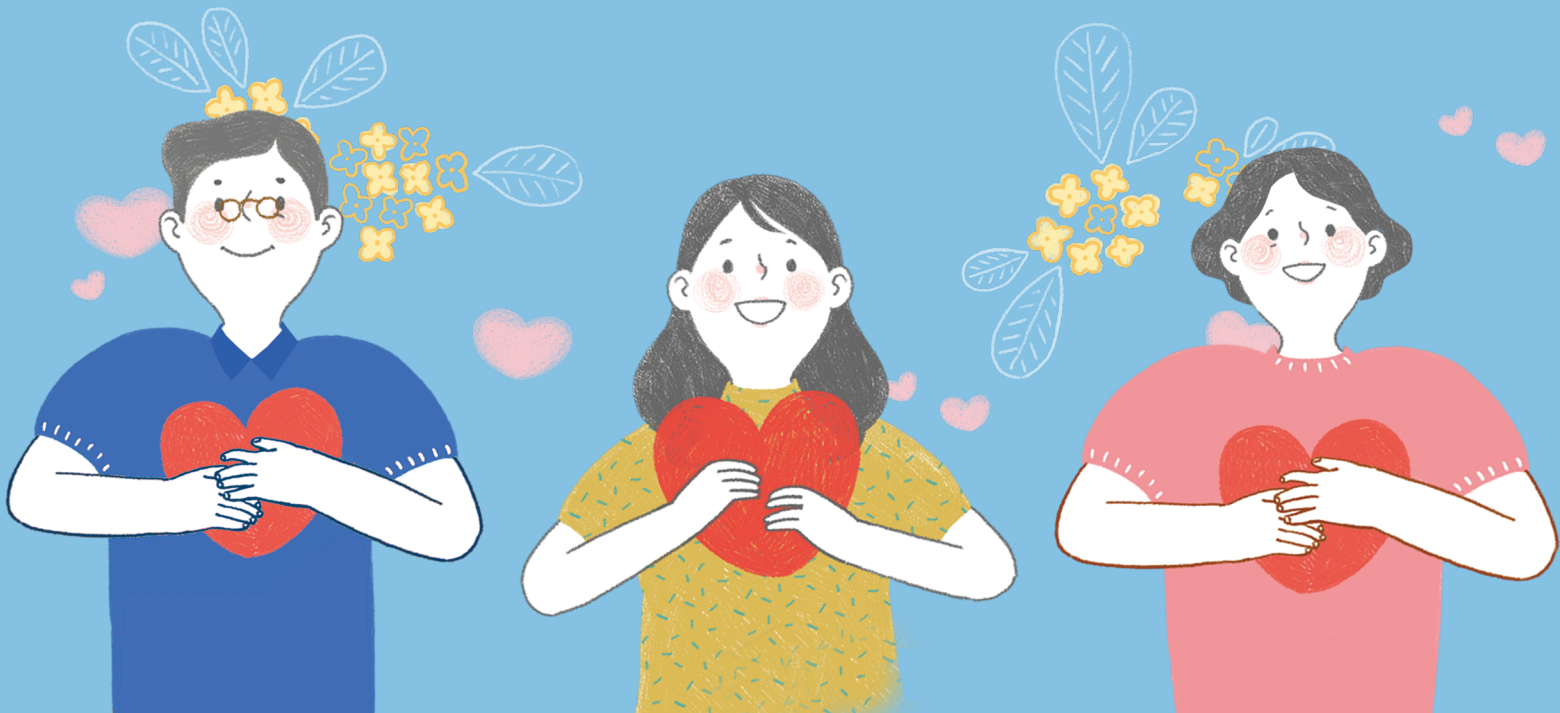
03

아름다운 만남

반갑다! 친구야 ----- 40

감사합니다! 선생님 ----- 53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 63



우리 학교 학생회장님을 소개합니다.

김순자 | 원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반갑다! 친구야 ① - 김준기 학생회장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우리 학교의 6월 마지막 등교일에 저는 학생회장님을 만나 뵈고 왔습니다. 학생회장님은 매 등교일에 항상 일찍 등교하여 봉사를 하고 계셔서, 학생회장님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 활동으로 인해 바쁘시지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학생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인터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2학년 학생기자입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학생 안녕하세요. 원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인 65세 늦깎이 중학생 전교회장 김준기입니다.

기자 원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에 입학하시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으신가요?

학생 우리 세대가 태어난 50~60년대는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 시대 부모님들은 본인을 위해 돈을 쓰는 건 낭비요, 사치라 생각하고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악착같이 일하셨고 자식 또한 돈이 없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 집 뒤에 숨어서 교복 입고 등교하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으로 멈춰버린 나의 가슴에 지인의 권유로 용기를 얻어 만학에 꿈을 안고 방송통신중학교에 원서 접수하였습니다.

기자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 시절엔 배움이 당연시되지 않아, 이렇게 배움의 기회를 다시 얻게 된 것은 저에게도 큰 행운입니다. 학생회장님, 지난 체육대회 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특히 힘들었던 부분 있으실까요?

학생 준비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죠.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전교생이 함께할 시간이 없었어요. 체육대회 계획부터 집행까지 학생자치회에서 하려니 힘들었어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오랜만에 하는 행사였기에, 준비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학생회 주관으로 하다 보니 시행착오도 있고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전교생들이 각 반장님 지도로 잘 따라주셔서 아무 불상사 없이 체육대회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기자 앞으로도 큰 행사가 두 번이나 남았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학생 그럼요. 8월 28일 현장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 '향나무 어울림 한마당' 예술축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0월 16일 '향나무 어울림' 행사는 우리 교우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기를 살려 준비하는 문화예술축제라 기대하시는 학우

님들이 많은데요, 기대해주시는 만큼 모든 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자 회장직을 맡으면서 좋았던 기억이나 경험이 있으실까요?

학생 좋았던 기억은 아무래도 학생회장에 당선된 것입니다. 선거기간 동안 함께 선거운동을 도와준 학우님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7표 차이로 당선이 되다 보니 더욱 잘해야겠다는 부담이 컸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학생회장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선배들과는 추억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후배들과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용기를 내어 중학교에 함께 입문한 것도 인연인데, 3년 동안 학교생활 경험을 살려 후배들에게 많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기자 이제 졸업반이신데 회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학생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진학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중학교에서의
행복한 기억을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도
이어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중학교 기간 학생회장으로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생님과 교류
하면서 후배들과 함께 3학년 학교생활을
보내고 싶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학생 그동안 세월을 돌고 돌아 중학교에 다니지
못한 설움으로 살아오셨지만, 이제 소원을
이뤘으니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지도로
가정과 직장을 오가면서 학업에 대한 열정
으로 보석처럼 빛나는 중학교 졸업장을
가슴에 품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있는 만큼 몸과 머리 또한
따라주지 못하니 너무 공부와 시험에 신경
쓰지 마시고 동급생님들과 또 하나에 추억을
만들면서 학교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김준기 학우님



기자 학생회장님, 인터뷰 요청에
흔쾌히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학생회장님의 멋진 리더쉽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원주중학교에서
뉴스레터 'U-반딧불' 학생기자
김순자이었습니다.

우리는 올케, 시누이 사이

박상숙 |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반갑다! 친구야 ② - 김선화, 유경춘 학우

푸름이 짙어져 가는 청명하고 찬란한 5월에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우님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만난 학우님들은 특별한 사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올케와 시누이 사이입니다. 학우님들은 각각 3학년과 2학년에 재학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학우님이 어떻게 같은 학교에 재학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두 학우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학생 올케 김선화 :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2반 봉사부장 김선화입니다.

시누 유경춘 :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2반 유경춘입니다.



기자 두 분께서는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어떻게 진학하게 되셨는지요?

학생 올케 김선화 : 늘 배움에 목말라 지내는 동안 기회가 찾아왔을 때는 짊어지고 있던 삶의 무게를 내려놓지 못해 배움의 길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렇게 살다 가는 내 삶이 더 피폐해지겠구나 싶어 교육청과 학교에 문의해 학생이 되었고, 원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학생을 거쳐,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시누 유경춘 :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어머니가 위암과 식도암이 온몸에 전이되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에 입학할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김선화 선배님이자, 올케언니와는 이웃 소꿉친구로 자랐으며 초등학교 동창생이었습니다.

저희는 교복이 너무 입어 보고 싶어서 교복과 비슷한 옷들을 사 입어보기도 할 정도로 학생이 되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기자 두 분이 함께 학교에 다니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학생 **올케 김선화** : 처음엔 생각이 달라 사소한 다툼도 있었지만,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생활이나, 수업 등 여러 분야를 공유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 출석수업일에 시누이를 마주칠 때마다 얼마나 반가운지 예전보다 더 많은 정이 들었습니다.

시누 유경춘 : 1년 선배인 김선화 학우를 학교에서 만날 때면 학생의 길을 견도록 인도해 준 언니께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 김선화 학우는 봉사부장으로써 학교 일도 아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언니랑 학교생활을 공유해가며 학창 시절의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기에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기자 방송고에 바라는 점이나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학생 **올케 김선화** :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방송고의 존재를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방송고 졸업 후 어디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대학교에 진학하는 방법도 더욱 상세하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걸어가는 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누 유경춘 : 전 바라다기보다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선생님의 가르침과 또 학생들 사이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학습, 맛있는 점심 식사도 제공해 주시는 것에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써서 선생님과 학우님들의 예쁜 얼굴을 반박에 볼 수 없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기자 두 분께서 학창 시절을 보내며 하고 싶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 **올케 김선화** : 코로나19로 인하여 1~2학년 때 여러 행사를 하지 못해 아쉽게 지나갔는데,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행사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이 1년이 남은 지금 여러 행사에 참여하여 후배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든든한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시누 유경춘 : 선배님들께서 중학교보다 많이 어렵고 수업도 8교시까지 있다고 하셔서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자상하신 선생님들의 귀한 가르침 속에 지금은 등교하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저는 남은 학교생활 동안 열심히 공부하며 학우님들과 함께 예쁜 추억을 많이 쌓고 싶습니다.



기자 앞으로 방송중·고에 입학할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학생 **올케 김선화** :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해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학교로 향하는 마음만 품고 오시길 바랍니다. 배움이 한으로 남아 있던 그 자리에 선생님들의 고귀한 가르침은 마음에 양식이 되어 입학하는 그 날부터 못 배웠던 삶의 고단함을 배움으로 승화시키며 제가 걸어온 길처럼 그대들 삶 또한 더욱 윤택해지리라 믿습니다. 눈부신 학창 시절 꼭 누리보시길 바랍니다.

시누 유경춘 :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용기 내서 도전해보세요. 제 경험으로 보아 배움의 갈망으로 푸석했던 그 자리에 학생이 되고 보니 선생님들의 귀한 가르침들을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쓰고 또 쓰고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 길거리의 영어 간판도 눈에 보이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후배 분들도 꼭 용기를 내셔서 이런 즐겁고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방송고는 무엇이다, 한 마디로 정의하신다면요?

학생 **올케 김선화** : 나에게 방송고는 기회의 광장입니다. 하고자 했고 얻고자 했던 마음속 소망을 마음껏 펼쳐 나갈 수 있는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와 같은 학우님들을 만나 출석일마다 소통하며 걸어가는 이 기회의 광장은 내게 있어 행복 바이러스가 피어오르는 활력소입니다.

시누 유경춘 : 나에게 방송고는 꿈의 돋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저는 기계를 다루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배운 일본어와 영어 덕분에 어려움 없이 일본어와 영어를 읽고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고는 저에게 있어 꿈의 돋보기입니다.

기자 두 학우님 바쁜 일상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올케언니와 시누이의 모습 같아 부럽습니다. 소꿉친구로, 초등학교 동창으로, 올케언니와 시누이 관계로, 지금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선·후배로 걸어가는 길! 참 부럽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두 학우님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원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에서 뉴스레터 'U-반딧불' 학생기자 박상숙이었습니다.

김선화, 유경춘 학우님



초등검정고시부터 방송중까지!

김순자 | 원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반갑다! 친구야 ③ - 김수영 학우

첫 등교일, 학생들은 고운 옷으로 차려입고 등에는 큼지막한 가방을 메고 만학의 꿈을 안고 모여듭니다. 우리 학교 임원진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손 소독과 열 체크를 합니다. 저는 기자로서 사진을 찍고 있었지요. 얼굴은 하얗고 유난히 키가 작은, 다리가 매우 불편해 보이는 한 분이 카메라 렌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등교 때마다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걷는 것조차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우려와는 달리, 항상 씩씩하게 학교에 가시며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그 작고 예쁘신 분이 저는 너무 궁금해서 용기를 내어 그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인터뷰를 요청하였습니다. 김수영 학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2학년 학생기자 김순자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학생 저는 올해 원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에 입학한 1학년 2반 김수영입니다. 나이는 올해 68세입니다.

기자 학교생활을 하긴 늦다면 늦은 나이이신데, 어떤 계기로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었는지요?

학생 2년 전에 복지관에 다녔어요. 복지관에서는 장구, 춤, 공예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복지관에 함께 다니는 지인이 초등학교 검정고시가 있다는 것을 소개해 주었어요. 저는 부끄럽게도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었

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무척이나 어렵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한 결과 4개월 만에 초등 검정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기자 학우님! 대단하십니다. 늦었지만 중학교 입학 축하드립니다. 학우님의 중학교 입학은 감회가 정말 새로울 것 같습니다.

학생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중학생이 되리라곤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기자 학교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학생 아무래도 출석수업일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등교일이 다가오면 가슴이 설레어서 잠을 설칩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좋고요, 방송통신중학교 특성상 저와 나이가 비슷하신 학우님들이 많아 용기가 더 생기고 생활의 활력소가 됩니다.

기자 맞습니다. 2학년이 되었지만, 저도 출석수업일이 가장 설레는 날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좀 조심스럽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데, 혹시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장애가 생긴 것인지 조심스럽게 여쭙보아도 될까요?

학생 어떻게 장애가 생긴 건지,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3살 때 사고로 인해 소아마비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소아마비로 인하여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큰 좌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다고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학교도 다니는 모습을 부모님께서 보신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기자 어려운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애가 있다고 못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이나, 계획이 있으실까요?

학생 네, 일단은 중학교 졸업입니다. 그다음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방송통신대학교까지 입학하여 공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요? 지켜봐 주세요!

기자 우리 학우님 꼭 그 소망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진솔한 이야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파이팅! 항상 응원합니다!

첫 등교일에 제가 본 김수영 학우님의 모습은 다리가 불편하지만, 씩씩하게 등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감명받아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인터뷰를 통해 김수영 학우님과 대화를 해보니 더욱 씩씩하고 굳센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수영 학우님 지금의 마음처럼 언제나 씩씩하고 밝은 모습으로 원주중학교를 밝게 비춰주길 바랍니다.

이상 원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에서 뉴스레터
‘U-반딧불’ 학생기자
김순자이었습니다.

김수영 학우님



배움이 주는 기쁨

조 광 흠 | 동래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반갑다! 친구야 ④ - 이복순 학우

방송중·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래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신 이복순 학우님과의 인터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이복순 학우님이 생각하는 배움의 의미와 지금도 함께 도전하고 있을 전국의 방송중·고 학생분들을 위한
응원과 격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우님이 1943년생이시니까 우리 나이로 79세입니다.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배움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학우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학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동래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복순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년 시절은 무남독녀 유복녀로 태어나 그야말로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조부님의 사랑으로만 자랐

습니다. 그리고 6·25 한국전쟁 때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파평윤씨 벼슬 덕 따님을 할머니로 모신 덕분에 초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 주변의 친구들은 다들 직업을 찾아서 도회지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형편이 좋지 않아 집안일을 도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배움을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이 독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중앙강의록이란 것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구하

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았습니다. 여러 곳을 수소문하여 독학이라도 해보기 위해 어렵게 책을 구했지만 혼자 하는 공부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배움에 대한 꿈을 접고 생계에 뛰어들어 살아오다 방송통신 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만나 기적적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자 그렇군요. 학우님께서도 정말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으시고 이 자리에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우님의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으로 인해 늦은 나이이지만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라는 기적을 선물해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복순 학우님은 이제 내년이면 졸업을 앞두고 계시는데요. 졸업 후에 하고 싶은 것 또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학생 사실 제가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알게 된 것은 아주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부산에 방송통신중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반가운 마음에 학교로 연락을 드렸지만 이미 정원이 마감되었다고 하여 그 다음 해에 방송통신중학교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약 60여 년만의 중학교 입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상하기도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60년

만의 중학교 입학은 저에게 제2의 삶을 살게 해준 기적과도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입학식 날 교실에 들어가니 저와 같은 연배가 많은 학우가 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나이는 80세가 다 되어 늙고 초라한 모습이 되어버렸지만, 배움의 열망만큼은 그때 학창 시절로 다시 돌아간 듯했습니다. 지금도 그날 학생들의 뿔망뿔망하게 빛나던 눈망울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방송통신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힘을 이겨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나의 건강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만, 몇 년 만이라도 더 일찍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알았다더라면’이라는 아쉬운 마음과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속절없이 지나간 세월에 대한 원망도 컸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얗게 늙어버린 지금의 내 모습이지만 그토록 원하던 학업의 꿈을 이뤘으니 나의 건강을 잘 관리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한 후, 대학에도 한번 도전해 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루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의 방송중고 학우분들도 늦은 나이라는

이유로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큰 도전에 성공하신 분들이 십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에너지를 갖고 묵묵히 나아가신다면 그 끝에는 밝은 빛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기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복순 학우님께서서는 내년이면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계십니다. 배움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모든 후배 학우님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학생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60년의 세월이 흘러 서야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까지... 저는 배움이라는 단어를 60여 년 동안 너무나도 그리고 누구보다 갈망해왔습니다. 물론, 그 시절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후배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학업과 배움을 갈망해온 우리 후배들, 더욱더 노력하고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늦은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기관리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반드시 하고자 하는 꿈을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염원하던 배움의 갈망과 열망이 모여 굳건한 마중물이 되어 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이복순 학우님은 6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못다 이룬 배움의 꿈을 간직한 채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60년 만에 찾아온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라는 존재는 이복순 학우님이 말씀하셨던 배움의 갈망 그리고 갈증을 기적과도 같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방송중·고를 다니고 계신 학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배움의 갈망과 갈증을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통하여 풀어나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꿈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복순 학우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래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뉴스레터 'U-반딧불' 학생기자 조광흠이었습니다.

이복순 학우님



문학을 사랑하는 소년과 방송고의 만남

박상숙 |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사랑해요! 선생님 ① - 함영기 선생님

방송중·고 학우여러분 안녕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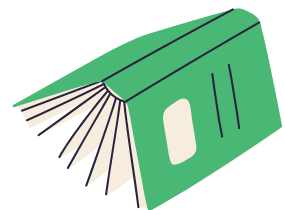
저는 오늘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2학년 문학 과목을 담당하고 계시는 함영기 학생부장 선생님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늘 저희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함영기 선생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함영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방송중·고 학생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방송중·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뉴스레터를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2학년 문학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함영기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본교인 원주고등학교와 부설로
운영 중인 원주고 부설 방송고를 너무
사랑해서 1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주고 부설 방송고에서는 근무한 지
5년이 되어갑니다. 원주고 부설 방송고
에서는 학생부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성인 학습자분들이 늦은 나이에 학업을
위하여 큰 도전을 결심하시고 원주고에
오신만큼, 학습자분들이 항상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늘 살피고 고민
하고 있습니다.



기자 선생님께서는 교직 생활을 꿈꾸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선생님 저는 유년 시절을 시골에서 보냈습니다. 독자로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요, 당시에 우리 또래들은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늘 저에게 장래 희망에 대해서는 “꼭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던 저에게는 “오로지 꿈은 교사뿐이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직업은 생각하지 않고 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진학할 때도 고민 없이 국어교육과로 지원하여 대학 생활을 이어 나갔습니다. 사실, 제가 유년 시절을 자연 속에서 살아 오며 느꼈던 다양한 감수성이 지금의 문학 교과를 가르치는 데 매우 큰 재산이 되었고 원동력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교직 생활을 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시면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오랜 교직 생활을 했던 만큼 기억에 남는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육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해직이 되어 8년 동안 학원 선생님이로 생활했었는데, 그 기간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평생 불효자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 부모님에게 죄송한 마음뿐이고 가슴 한편이 아파집니다. 그 후에도 전교조 활동을 하면서 크고 작은 징계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가족들에게는 아주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후회 없이 교단에서 즐겁게 근무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평준화 시절 제자들, 진주, 정선에서 함께 했던 시골 학교 제자들 등등 이런 학생들과 함께 해왔기에 지금의 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단연 방송고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송고 학생들은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처럼 모두가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고 학생 개인마다 감동적인 삶을 살아오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송고 제자들의 이야기는 아마 밤을 꼬박 새워도 다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방송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어려움이나 보람 같은 건
없으셨나요?

선생님 아마 최선희라는 이름의 학생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학생이 제천에 있는 성당에서 근무하고 계셨어요. 성당은 보통 일요일에는 미사가 있어서 학생이 주말 출석수업에 나오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계속되는 결석으로 중퇴가 불가피했는데, 제가 성당으로 공문을 보내고 직접 찾아가 신부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부탁해서 결국에는 무사히 졸업까지 했습니다.

이후 방송통신대학교에 진학까지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방송고가 주말 출석수업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서 제약이 있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요, 이런저런 사유로 자퇴하는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꿈에 그리던 학업의 희망을 품고 시작한 학교 생활인데 또다시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하여 두 번 상처받는 상황이 저로서는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고 학생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이 보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자 방송고 학생들은 늦은 나이에
학업을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인데요, 혹시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들처럼 지금이라도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선생님 사실 이 질문은 은퇴를 앞두고 수없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은퇴하면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 제2의 삶은 있는지 등등이요. 저는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과서나 참고서에 나오는 내용 그 이상의 지식에 대한 것을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박하지만, 평생 가르치던 교과서 밖 지식에 대한 다양한 견문을 넓혀나가면서 살고 싶습니다.

기자 다음은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인데요,
나에게 방송고는 ()이다.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요?

선생님 ‘방송고는 (대한민국 최고 명문고, 감동의 배움터)다.’라고 하겠습니다. 흔히

주변 사람들이 방송고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 또는 10대나 문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고 학생들이 가진 각각의 사연은 한 편의 영화 그 이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모인 곳이 바로 방송고라 생각합니다. 이런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연을 지닌 학생분들이 배움에 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방송고란 제도를 통하여 한 단계 더 발전하실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명문고는 우리나라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방송고 학생들의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전국 방송고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선생님 앞서 질문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방송고 학생분들의 삶은 고난을 이겨낸 승리의 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 방송고 학생들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당당한 긍지를 잃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원주고 함영기 학생부장 선생님께서는 유년 시절부터 문학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교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신 점이 우리 방송고 학생들의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함영기 선생님께서 주신 고귀한 가르침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가슴에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신 함영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뉴스레터 'U-반딧불' 학생기자 박상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영기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강은구 교무부장선생님

유정숙 | 주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사랑해요! 선생님 ② - 강은구 선생님

오늘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인 주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강은구 교무부장 선생님을 인터뷰하였습니다. 강은구 교무부장 선생님은 올해 2월 퇴직하셨고, 저희를 위해 많이 힘써주셨습니다. 또 2회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에 큰 역할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자랑스러운 주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의 강은구 교무부장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기자 강은구 교무부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34년 동안 영어 교사로 교직 생활을 해오다가 지난 2월에 명예퇴직한 강은구입니다. 2018년도에 주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를 개교하였고, 지난 4년간 방송중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기자 교무부장 선생님께서는 교직 생활을 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실까요?

선생님 저는 서울로 올라가 공부하기를 원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포기하였습니다. 고3 시절 주변 어른들을 찾아뵙고 의견을 많이 들었고, 주변 어른들의 추천으로 사범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어른들의 추천으로 시작된 교직 생활이었기에, 동기는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교직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적성에 잘 맞았고, 교직 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른들의 말씀을 듣기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 교직 생활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몇몇 학생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첫 발령 학교에서 체력이 너무 약했던 여학생, 2년 만에 갑자기 청주로 발령이 나서 떠나는 제 차를 붙잡고 빗속에서 울던 학생들,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졸업한 학생까지 다행히 해피 엔딩으로 지금은 모두 씩씩하게 잘살고 있어서 정말 대견하고 좋습니다. 요즘에는 SNS로 가끔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중 학생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저에게는 소중한 특별한 학생으로 기억에 남는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방송중 학생들을 가르치시며 어려움이나 보람된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방송중 학생분들 대부분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50, 60년이 넘었고, 입학할 때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컴퓨터 전원을 켜는 방법부터 방송중 홈페이지 가입 방법, 강의 수강 방법, 학교 생활 등을 지도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해를 돕는 자료 만들기와 방법 등에 대하여 굉장히 고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힘들어 하셨지만,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셨던 열정과 지혜로움 덕분에 모두 적응하셨고, 진급하셨고, 졸업까지 하셔서 고등학교에 진학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하지만, 학생들이 얼마나 큰 노력을 했을지를 생각하면 제 고개가 저절로 숙어집니다.

평소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사인 제가 학생분들 모두를 존경합니다. 방송중 학생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 분 한 분이 살아있는 우리나라의 역사 그 자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로서의 어려움보다는 보람이 훨씬 더 컸다고 말씀드립니다.

방송중 학생들과 함께했던 교육 활동들이 매우 많았기에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감동적이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본교 축제에 방송중 학생분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서예가를 모셔 와 가훈과 한자 좌우명을 써주었으며, 작품 전시와 사물놀이 공연 등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본교 학생들과 함께한 합창의 하모니는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눈물이 날 정도로 큰 울림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방송중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본교 학생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방송중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 본교의 어린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기자 퇴직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늦깎이 시니어 학생들을 보시고 가르치시며 퇴직 후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지요?

선생님 올해 2월 말 퇴직할 때까지는 학교생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교사라는 직분을 행복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평소 게을리했던 운동과 집안 살림 등을 손보고 있고요.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 교육을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4년간 보아왔기에, 제가 앞으로 무언가 할 일을 정하면 어르신 학생들을 따라 열심히 해내어서 제 인생의 2막을 멋지게 살아내고 싶습니다.

기자 바쁘신 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신 강은구 교무부장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생님의 행복한 2막을 학생을 대표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이상 주성중학교 부설 방송중학교 뉴스레터 'U-반딧불' 학생기자 유정숙이었습니다.

강은구 선생님



우리 학교의 사랑

배인매 선생님을 만나다

최 동 순 | 춘천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사랑해요! 선생님 ③ - 배인매 선생님

한 과목 수업을 지도하시기도 힘드실 텐데, 사회문화와 경제 두 과목을 맡아 지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춘천고등학교 3학년 본교생들의 진로 지도교사와 방송통신고등학교 2학년 2반 담임선생님까지 맡아주고 계시는 배인매 선생님을 만나 뵈겠습니다.

기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저에 관한 기사를 제보해 주신다니,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기자 선생님은 언제부터 교직에 몸담아 오셨는지요?

선생님 1989년 봄, 평창고등학교에서 첫 발령을 받고 사회 분야를 가르치는 교사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33년 동안 강원도 내 여러 중학교, 고등학교를 두루 거쳐 오고 있습니다.

기자 본교생들과 동시에 지도하시어서 휴일도 없이 많이 힘드실 텐데 항상 천의 미소로 저희를 지도하시는 비결이 있으실까요?

선생님 본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과 만나는 수업 시간은 항상 마음 설레고, 즐거운 또 하나의 과정이며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마인드로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늘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기자 오랜 교직 생활하는 동안 어려움이나 보람된 일이 있으셨다면 어떤 일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선생님 어려웠던 점은 학생,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이 부족하여 생긴 일들이고, 보람되었던 일은 열심히 공부하던 제자들이 본인의 진로를 잘 선택하여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기자 언제부터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업 지도를 하셨나요?

선생님 2019년 춘천고등학교 본교에 온 후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과의 만남은 처음입니다.

기자 한 과목도 힘드실 텐데, 사회 분야와 경제 두 과목을 지도하시며 특히 경제에 대해 폭넓고 풍부한 지식은 경제 전문가로서 중점적인 학문 연구를 하신 것일까요?

선생님 하하, 전문가는 아니고 사회 과목을 가르치며 사회생활을 하려면 경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학원 과정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어요. 지식과 깊이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자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업을 지도하시며 담임으로서 어려움과 보람된 점들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방송통신고등학교 담임으로서 어려움 이라기보다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께 많은 것들을 배우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자 저희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대한 발전 방향과 학생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세요.

선생님 바라는 것이 있다면, 모든 분이 지금처럼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것 입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면 많은 분이 대학도 진학하셔서 학업을 이어가신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자 선생님의 바람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좋은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한 미소가 늘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춘천고등학교 부설 방송고등학교에서 뉴스레터 'U-반딧불' 학생기자 최동순이었습니다.

배인매 선생님



강원도 교육의 사랑 신경호 교육감님을 만나다

최 동 순 | 춘천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① - 신경호 교육감님

2022년 7월 24일 일요일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때늦은 나이에 배움을 열망하며 학교 수업에 열중하고 있는 방송통신중·고등 학생들을 직접 둘러보고자 수업 시간 전 춘천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교육감님은 우선 교감 선생님 집무실에서 교감 선생님, 교무부장 선생님, 학생 대표 등과 함께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여건에 대한 문제점들을 직접 경청하시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함께 고민해주셨습니다.

우선 학교마다 동아리 활동 활성화와 함께 도내 중·고등학교 학예발표회 및 체육대회 등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각 학교 임원진 워크숍을 통하여 교육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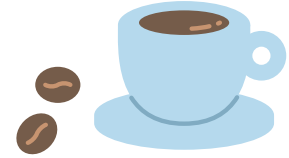
발전을 모색하고 토의하였으며, 각 교실의 수업 모습 등을 직접 둘러보며 학생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신경호 교육감님은 교사 시절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을 지도하였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연합 체육대회 개최 등을 마련해주셨다고 합니다.



아울러 춘천교육지원청장 재직시절 춘천 관내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큰 노력을 하였으며 퇴직 후에도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셨습니다.

강원도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 생활을 위해 힘써 주시는 신경호 교육감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신경호 교육감님

1

본교 교육환경과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미래지향적 교육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2

직접 학생들을 만나 건의사항과 개선방향을 이야기 나누는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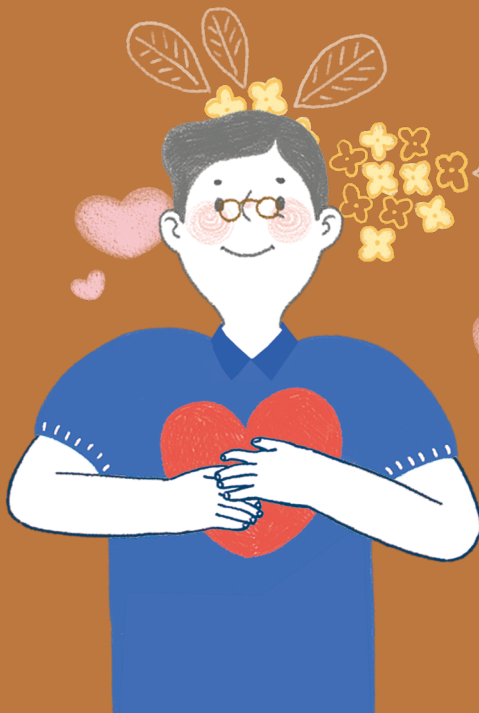
04

우리들의 이야기

시 ----- 66

수필 ----- 70

서예 ----- 78



한 송이 수선화

민경자 | 전주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한 송이 수선화
건드리기만 해도 넘어질 듯
부드럽고 수줍은 자태

말을 건네면 조용하다 못해
속삭이는 그 목소리
여리디여린 한 송이 수선화

언제나 웃음의 미소가 번진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꽃 수선화

때로는 그윽한 농담으로
때로는 잔잔한 카리스마로
가녀린 몸에서 힘이 느껴진다

오늘도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교정에서 인사를 하신다
하늘하늘하게 어서 오라고



여기는 홍성고

이 경 옥 | 홍성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내 나이 65세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가정 형편이 어려워
제때 못한 공부 다시 시작

집에서는 농부, 아내, 엄마로 할머니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지만
이루지 못한 꿈 접어두었던 공부
한 장씩 넘기며 꿈을 이루어 가는 중이다

학교가 좋고 선생님, 친구들이 좋아
찬밥 한 덩이 싸 들고
무거운 가방도 힘든 줄 모른다

수학공식은 몰라도 배워가는 재미에
학급에서는 부반장
예술경연 대회에 나가 상도 타고
재미있는 학교생활에 날마다 행복하다

여기는 홍성고,
꿈이 실현되는 방송통신고등학교
내 모교가 되는 학교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손 병 도 | 동래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질레꽃 향기가 괜스레 호들갑을 떠는 소리와
5월의 빨간 장미 고독한 향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한잔 손에 들고 이팝나무 꽃그늘에서
도란도란 속삭이는 하얀 꽃잎들의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거친 바람 조용히 쓰다듬어
하늘에 오색풍선 띄우고 마주 보는 눈길로
조용히 미소 지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꼭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장재선 | 동래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봄바람은 연분홍 치맛자락만 살랑이는 줄 알았더니
만년설을 이고 있는 칠순의 옥희 가슴에도
팔손이 눈앞인 행자 언니 눈언저리에도 다정하더라

물빛 고운 하늘빛이 교실에 내려앉았다
늘 허기져 있던 날들을 글로 배를 채운 학우들이
글밭에 앉아서 행복을 캐내고 있다

오! 해피데이를 흥얼거리던 끝님이 언니는
난타 동아리 시간에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 장단에
서리 내린 눈썹 위로 복사꽃이 피어난다

늘 학번에 2반이라 적어 내던 등 짝지 학우님은
기어코 2반 교실에서 당번 소임을 다하고
말간 3반 교실 창문 너머로 헛헛한 웃음소리가 복도를 떠다닌다

그렇더라 우리는 지금
작은 바람결에도 일어서서 춤추는 풀잎들에 환호하고
들꽃의 선한 웃음이 감사해서 눈시울 붉히는
우리의 노년은 일상에서 존재감을 찾아가는 원더풀 라이프다



산골짜기 소년 목동의 꿈

최 동 순 | 춘천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어느 화창했던 봄날, 근처 공원에 앉아있는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호랑나비 한 쌍이 구애하며 하늘 높이 치솟아 오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나비가 하늘 높이 구애하면 긴 가뭄이 든다.”는 옛 어른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지난겨울 부터 눈 한번 내리지 않던 긴 가뭄이 늦봄까지 이어지고, 산골 마을에는 식수가 모자라 애를 태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농장에 심어놓은 갖가지 모종들이 목이 마른다며 물을 달라는 듯 축 늘어져 잎이 꼬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뭄이 이어질 때면 어린 시절 천수답으로 농사를 지을 때가 생각납니다. 긴 가뭄은 끝이 보이지 않고, 아버지의 병환으로 농사일은 내 몫이 되어 중학교 입학 3개월 만에 자퇴해야 했던, 그래서 저는 평범한 학생을 포기하고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생계를 위하여 소를 기르는 산골짜기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은 소가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소는 집안의 큰 재산과도 같았습니다. 우리 집은

암소 한 마리와 누렁 황송아지를 기르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황송아지 등에 올라타 풀을 먹이러 가던 그때가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어두컴컴한 산속에 들어가 소들이 먹을 풀을 베러 가는 것은 정말이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가족들의 생계, 그리고 이것이 나의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다는 생각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빗속으로 풀을 베러 갔던 나의 그 시절도 이제는 아련한 추억의 한 장면으로 돌이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창 모내기철인데도 비가 오지 않아 물 부족으로 물이 충분치 못한 자갈논을 갈아 늦은 모내기를 할 때면,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는 하지만 충분하지 못한 물로 인해 소들의 발에 피고름이 생겨 절룩거리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도 함께 쓰라림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이런 소들을 위해서 저는 더 부지런하게 그리고 더 정성스럽게 풀을 베어다가 먹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 마음을 이해해 주었는지 우리 집 암소가 예쁜 송아지를 낳아주었

습니다. 지금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몇 번이고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에 며칠 밤을 지새워 울기를 반복했던 삶이었지만, 그 안에서 소소한 행복과 보람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 태어난 송아지와 암소 그리고 황송아지를 데리고 풀을 먹이러 나왔는데, 암소의 고삐를 풀어주려는 순간, 길쭉한 뿔을 가졌던 암소가 내 가슴을 향해 달려드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암소는 몇 발짝 뒷걸음질 치더니 계속해서 나를 향해 달려들기를 반복하고 있었는데, 같이 온 황송아지가 내 앞을 가로막아 주었고, 황송아지는 암소의 뿔에 받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황송아지는 고삐를 풀어주지 않았기에 낭떠러지에 목이 졸린 채 허우적거리며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나의 비명을 듣고 아버지와 일하시던 이웃이 달려와 나를 부축하는 한편 낭떠러지에 매달려 허우적거리는 황송아지를 끌어 올리려고 애를 썼지만, 애처롭게도 황송아지는 거기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정말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평소 정말 순하고 말도 잘 듣던, 내 가족과도 같았던 암소의 행동으로 인해 황송아지가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체온이 남아있는 황송아지를 끌어안고

어린애처럼 엉엉 소리를 내어 우셨고, 그런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눈에서도 연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황송아지의 죽음이 나 때문이라는 죄책감도 있었지만, 함께한 가족이 순식간에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현실 자체가 너무나 원망스럽고 슬펐습니다.

이웃 주민들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날의 사고는, 자기 새끼에게 위협을 입히려는 줄 알았던 암소가 새끼를 보호하려는 어미의 본능에서 나온 예기치 못한 착각에서 발생한 사고였을 거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황송아지는 공격받고 있는 주인을 위해 몸을 던져 나를 막아주었고, 결국 자신의 목숨을 바쳐 나를 구해주고 그렇게 혼자 떠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니, 동물들도 자신의 가족들을 생각하고 위하는 것은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그 속에서 행복하기도 했고 때로는 한없이 원망스럽기도 했던 여러 조각의 추억들을 가슴에 담은 채, 어느덧 반백년의 시간이 흘러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면서도 중단해야 했던 배움에 대한 열정은 노년이 된 지금 나의 가슴속에 여전히 남아, 한참을 돌아오긴 했지만 그 시절의 소년으로 돌아가 꿈을 이루기 위해 방송통신중학교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헌책에 손끝이 아리도록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쓰던 그 아련했던 시절의 방식에서 난생처음 접해 보는 생소한 원격기기를 통해 공부하는 내 모습을 보며 세월의 야속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학업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며 배우겠다는 꿈 앞에 어찌 지난 세월이 방해가 될 수 있으랴! 하고 다짐해 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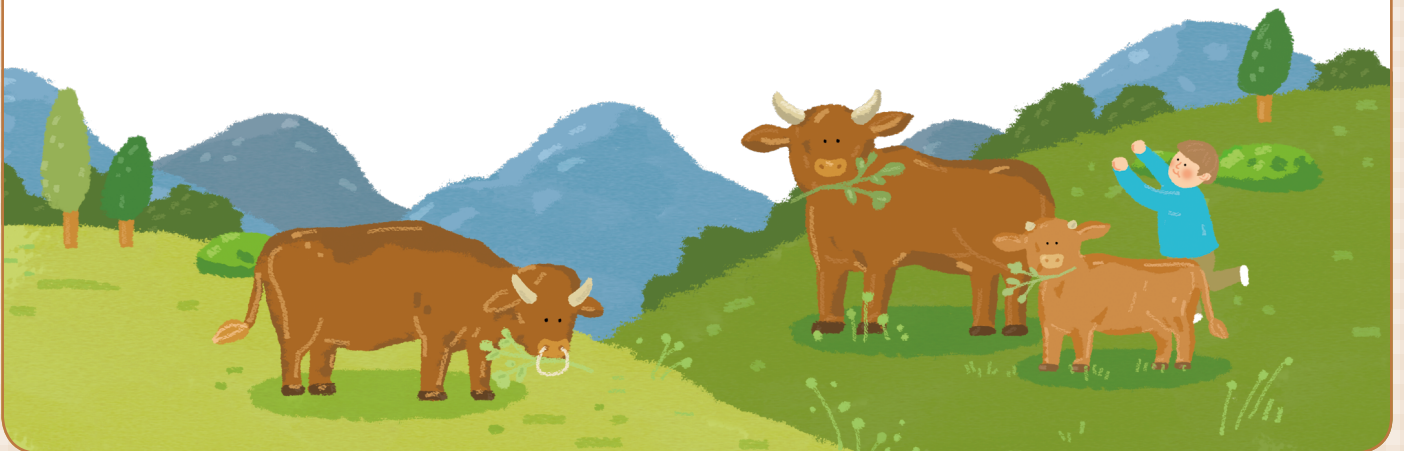
소를 키우며 꿈을 키우던 산골짜기 어린 소년. 이순(耳順)을 지난 칠질(七秩)의 길목에서 가꿈은 그 아득했던 옛날의 신기루 같은 추억들을 지금도 이따금씩 회상하며 많은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래! 그때는 소를 기르느라 배우지 못했던 공부, 이제 늦게라도 배울 수 있으니 이 또한 다행 아닌가!’

‘그렇다. 나의 도전은 지금부터 시작이며 어린 시절 나를 대신하여 죽은 황송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은혜를 갚는 길이다!’

나의 늦깎이 공부도 벌써 5년째, 방송통신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나의 열정을 춘천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쏟으며 배움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 줄 모른다.’라는 옛말과 같이 비록 늦게 시작한 공부지만 절대로 지치지 않을 것이며 어떤 난관이 있어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소를 기르던 산골짜기 어느 소년이 가졌던 꿈들이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아직도 뜨겁게 요동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를 키우며 꿈을 노래하고 그리워했던 한 소년은 세월을 한참이나 돌고 돌아 학생이라는 이름을 다시 달고 이제는 이른 새벽부터 컴퓨터 강의를 들으며 산새들이 불러주는 응원가와 들꽃들의 미소 속에 오월 산골짜기의 푸르른 꿈과 함께 짙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약속

김 배 숙 | 홍성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열기를 채 벗지 못한 도시의 침묵 위로 구름은 구멍을 내며 밤새 소나기를 쏟아내었다. 빗소리보다 더 큰소리로 가슴 저미도록 울부짖는 시어머님.

당신 눈물 한없이 떠내려가는 밤, 칠십여 년 함께한 남편 봉안당에 모시고 돌아온 날, 아버님의 서러운 눈물도 비가 되어 내리는지 한 줄기 시원하게 내려 도시의 열기를 식히고 있다.

우리 집 현관문에는 '참전용사의 집' 표지판이 붙어있다. 6·25 전쟁이 일어난 다음 해, 혼인신고 하셨고 이듬해 5년간 제주도에서 군 생활을 하셨다. 당신의 아들이 잉태되었는지도 모르며 머나먼 제주도에서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셨다.

1953년 7월 10일 휴전이 협정되고 얼마 후, 휴가를 나와 보니 아들이 품에 안겨 많이 울었노라고 하셨다. 군대 이야기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시던 시아버님. 이제 구수하고 아련한 추억담도 들을 수 없다. 당뇨 합병증으로 다 빠진 잇몸을 드러내며 환히 웃던 6·25 참전용사도 사진 속

젊은 군인으로만 남아 영정사진 앞에 놓여있어 나를 슬프게 한다.

5남매 중 누나와 남동생 둘, 부모님도 일찍이 병사로 잃고 허전하고 외로운 마음 술로 달래시더니 어지러운 세상 다 내려놓고 싶었는지 62세 젊은 나이에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

세상과 단절하며 아픔도 모르고 어린애가 되어 26년을 사시다 구순을 조금 남기고 무덤던 7월의 마지막 밤, 이승에서 소풍을 마치시고 부모님 발자국 따라 밟으며 떠나셨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약속이란 것을 알기에 슬픔을 참기로 했다.

아버님은 알코올성 치매 판정을 받으셨지만, 90kg에 장대한 체격이셨다. 체력적으로 건강하셨던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은 감기 기운이 있는지 미열이 나고 호흡이 거칠었다. 주말이어서 다음 날 병원에 모시고 가려 했는데, 갑자기 호흡이 거칠어 병원에 가니 패혈증이라는 무서운 진단을 내린다. 오늘을 넘기기 어렵다는 황당한 소식을 접하고 집으로

다시 모셔 왔다. 시어머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감히 상상할 수 없다.

그날 밤 모든 가족이 모였다. 시아버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셨다. 큰사
위는 “그 병원이 잘못 진단한거네, 장인어른 오래
사시겠네요.”라며 안도의 말을 뱉었다. 가족들도
웃으며 일상에 복귀했다.

이틀 뒤, 별이 총총한 밤. 아버님 방에 불이 환
하게 켜있어 2층에서 내려오니, 홀로 외로운 길을
가고 계셨다. 나는 토사물을 치우고, 얼굴을 씻겨
드리고 불편해하던 기저귀도 벗겨드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며 극락왕생을 빌었다. 그믐달이
총총히 나와 아버님 가시는 길을 밝히고 있었다.

7남매 키우시며 가난한 종갓집 만며느리, 제사
모시느라 고생하시고, 젊어서부터 병 얻은 남편
수발하느라 등 굽고, 다리 절룩이는 구순의 시어
머니가 너무 애처롭다. 혹여나 우리가 노인병원에
모실까 봐 밤에도 간호할 수 있다고 하셨던 강인한
시어머니였다.

“아버지 따라가면 좋겠다.”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
구순의 어머님, 홀로 남겨진 어머님은 매일 방에서
주무시지도 않고 거실에서 쪼그려 주무신다.
거실 깊숙이 들어온 아침 햇살은 모로 누운 어머니의
성근 백발 앞에 서성거린다.



내 꿈은 익어가고 있다

민 영 조 | 동래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이게 꿈일까? 생시일까? 내 살을 꼬집어 봤다. 이건 꿈이 아니라 분명 현실이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공부하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었는데,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명문 학교로 소문난 동래고등학교 정문을 밟았다.

강산이 일곱 번 변하고도 7년이란 삶을 살았다.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상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에게 늦복이 터질 줄은 몰랐다.

꿈만 같은 인생이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배움에 굶주려 항상 열등감 속에서 살았었다. 그러다가 운명처럼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알게 되었다. 그렇게 화명중학교에 입학하고, 동래고등학교까지 이어서 진학하게 되었다.

사실 화명중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라는 사실이 부끄러워 친구들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떳떳하게 나는 동래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다닌다고 자랑하고 있다.

가족들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이런 행복한 인생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여든이 된 남편은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동네 이웃들에게 자랑한다.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다쳐 학교에 다니는 것이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가족들의 지원으로 학교에 등교할 수 있었다. 늦은 나이에 나는 축복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10대, 20대 젊은 학우들과 함께 공부하는 내 모습에 스스로 박수를 보내고 싶다. 웅장한 고등학교 정문을 들어설 땐 언제나 처음 등교했을 때의 마음처럼 떨리고 설렌다. 때때로 이 길이 나에게 맞는지 어리둥절할 때도 있지만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가족들이 만들어준 '졸업과 입학'을 축하합니다.' 라는 플래카드가 내 방에 걸려있다. 학교에 갈 때 마다 플래카드를 보며 스스로 다짐한다. 더도 말고 지금이 딱 좋다고. 내 꿈은 익어가고 있으므로.



여름밤의 추억

조 순 희 | 청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어김없이 돌아온 여름,
오늘 유난히 째뚱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마주치는 사람마다 더워서 못 살겠다는 인사다.
잔잔한 호숫가에 시원한 바람이 한 번이라도 스쳐
지나가면 좋으련만 더위를 감당할 수가 없다.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춘 듯 거리엔 뜨거운 열기만
있을 뿐 한산하다. 된 더위로 지쳐서 그럴까 입맛
도 없고 허기도 느껴지지 않는다. 상수의 나이로
말벗도 없이 에어컨과 친구가 되어 온종일 빈둥
거리니 에어컨 바람도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옛날 시골 풍경이 눈에 아른거린다. 산간벽지
농촌 고향에 한눈에 들어오는 자연이 어우러지는
풍경과 생기로 정감을 품어주는 시원한 자연
바람이 몸을 휘감던 내 고향이었다. 우리 옛집은
남향의 터로 지대가 약간 높고 앞에는 속리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냇물이 강처럼
폭넓게 흐르고 있었다.

어찌나 물이 많은지 피라미, 송사리, 메기, 쏘가리,
돌 틈 사이의 굵고 검은 다슬기까지 흰히 내비쳐
보였다. 수도가 없던 시골 마을은 골짜기에 바가
지로 물통에다 물을 퍼 담아 식수로 사용했다.
아이들은 골짜기에서 헤엄치며 수영장처럼 물장
구쳤다. 지겹도록 가난한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착하고 다정한 남편과 함께여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않은 소중한 자식들 품 안에 끌어안고 사는
행복한 일상이었다.

가족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하늘에서 내려
준 동아 밧줄에 매달려 사는 것처럼 의지하고
보듬고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살았다.



우리 집은 남향집으로 울타리 넘어 냇가 집이라 개울 바람이 몰아쳐서 아주 시원하였다. 선풍기도 필요 없었다. 그러나 모기가 많아서 아이들이 밤을 지새우기에 고통을 받았다. 밤에 마당에다 시아버님이 손수 만드신 멥석과 맏방석을 깔아주셨다. 쇠화로에는 항상 풀, 숙연기가 진동하는 모깃불을 놓아주셨다. 이런 시아버님의 정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들은 마루에 누워 별도 세어보고 서로 장기자랑도 하며 깔깔거린다. 복두칠성 금성도 찾아보고, 어느 날은 별뿔별이 떨어진다며 손뼉을 치며 좋아한다. 까만 어둠 밤에 마당을 날아다니는 반딧불을 잡아보려고 따라다니던 아들 모습도 보기 좋았다. 모깃불을 피워놓고 소설 쓰듯 다복했던 한여름 밤의 추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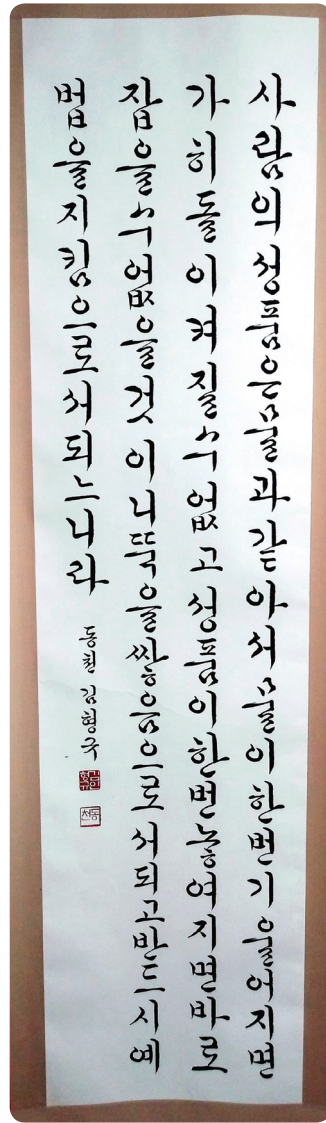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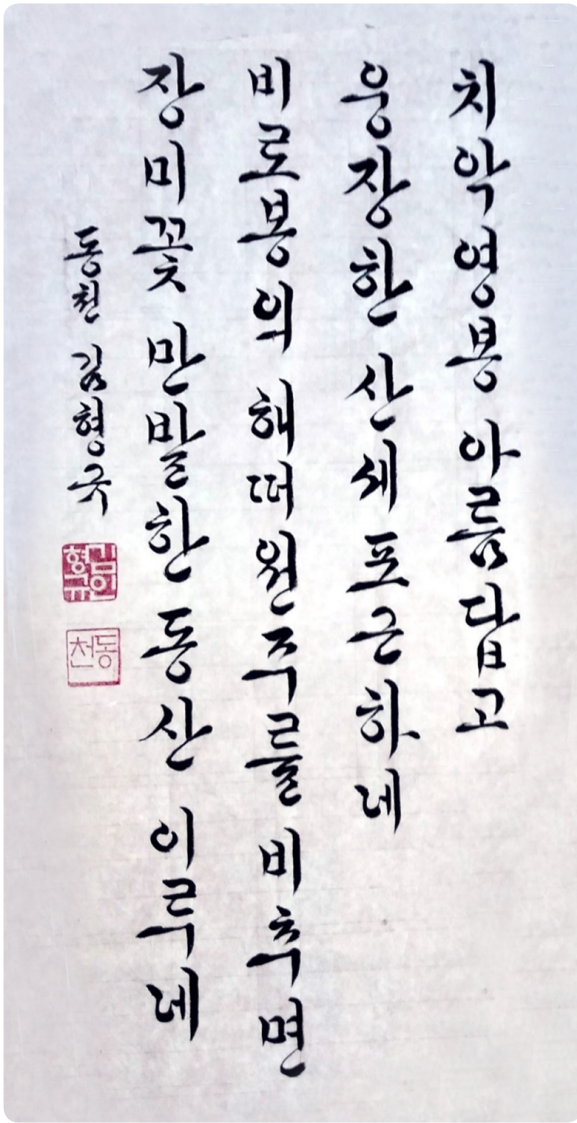
아름답기만 했던 한 여름밤의 추억을 아쉽게도 뒤로 하고, 아이들 교육 문제로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다. 지금의 여름밤은 여전히 예전 고향에서의 여름처럼 덥다. 하지만 마당가의 모깃불, 반딧불, 별뿔별, 아이들의 장기자랑하던 그 모습, 웃음 소리도 찾아볼 수 없다.

건조하게 돌아가는 에어컨과 TV 소리, 아파트 창문 너머로 까만 하늘과 반짝이는 광고 불빛만이 보일 뿐이다. 그 진한 추억의 여름밤 그 시절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 한없이 그리워진다.



서예

김형규 | 원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05

센터 소식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 소식



소식1

2022학년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교원 신학기 직무연수 개최

2022학년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신학기 교원 직무연수가 지난 3월 17일(방송중)과 3월 18일(방송고)에 개최되었다.

신학기 교원 직무연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으며, 방송중·고운영센터 YouTube 채널을 통해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생중계되었다.

이날 신학기 교원 직무연수에는 방송통신중학교 담당교원 52명과 방송통신고등학교 담당 교원 68명이 참여하여,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더불어 2022학년도 학사운영 안내, 교육과정 및 원격수업 운영 안내로 이루어졌다. 또한 YouTube 채널 게시판을 통해 질의응답을 실시간으로 진행하여 교원들이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소식2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용품 지원 및 배포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에서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통한 원활한 출석수업 지원을 위하여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16,417명을 대상으로 KF94 마스크 총 403,370매를 배부하였다.

소식3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 온라인 공모전 개최 및 신청 안내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단위 대면 학예경연대회를 2022년에도 온라인 공모전으로 대체 운영한다. 경연 부문은 방송통신중학교는 5개 부문으로 문예(시, 수필), 서예(한글, 한문), 회화(수채화) 분야이며, 방송통신고등학교는 7개 부문으로 문예(시, 수필), 서예(한글, 한문), 회화(수채화, 소묘), 캘리그래피 분야로 진행된다.

각 학교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경연지로 경연하여, 대표 학생의 작품을 온라인 공모전에 출품할 수 있다. 온라인 공모전은 7월 4일(월)부터 9월 8일(목)까지 진행된다.

온라인 공모전 심사 결과에 따른 온라인 시상식은 방송통신중학교는 10월 15일(토), 방송통신고등학교는 10월 23일(일)에 개최되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온라인 공모전 홈페이지 운영



학교 경연 실시



소식4

방송통신중학교 '자기이해 프로그램(성격유형검사)' 운영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에서는 지난 6월부터 방송통신중학교 학생들의 자아 존중감 확대와 자기 효능감 증대를 통한 학교 적응 및 학업 지속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이해 프로그램(MBTI 성격유형검사)'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 강사가 해당 학교로 방문하여 온라인 MBTI 성격유형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한 성격유형검사 결과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방송통신중학교 24개교 학교 중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11개교, 30학급의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소식5

방송통신고등학교 '생애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에서는 지난 5월부터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10대 학생들에게는 자기이해 및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인성, 진로, 여가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성인 학생들에게는 안정적인 생애설계 수립 및 진로 설계를 위해 건강, 관계, 학습, 여가, 직업 등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42개교 중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7개교, 40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1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소식6

방송통신고등학교 '인성·진로 온라인검사' 프로그램 운영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에서는 지난 4월부터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자기이해 및 진로 탐색 지원을 통해 학업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인성·진로 온라인검사를 운영하고 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인성검사, 학습능력검사, 진로검사 총 3종의 온라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유형별 검사 결과 확인을 통해 개인의 학습 유형을 파악하고 적합한 학습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자신의 역량과 적성을 이해하여 졸업 이후, 진로 선택뿐만 아니라 인생의 방향과 가치를 알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희망하는 학교에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온라인검사 실시를 돕고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설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42개교 중 5개교를 대상으로 이러한 인성·진로 온라인검사 학교 방문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올해 8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관계자 미래교육 역량 강화 연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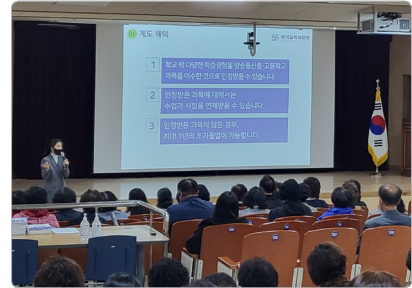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에서는 지난 7월 19일~7월 22일(1팀)과 7월 26일~7월 29일(2팀)에 걸쳐 2주간 강릉 스키아메이 경포 호텔에서 메타버스, AI 등 에듀테크의 이해 및 활용 실습을 통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관계자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2022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관계자 미래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하였다. 연수에는 전국 10개 시·도교육청 장학관 및 장학사, 전국 50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관리자 및 교원 총 82명이 참석하였다. 연수 주요 내용은 미래교육 특강 및 HMD의 이해 및 활용 실습, 메타버스·AI 등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교육 실

습으로 구성되었다. 연수 참여자들은 구글 카드보드/HMD의 이해 및 활용 실습, KEDI TOWN(메타버스) 체험, Tilt Brush/Spatial의 이해 및 활용 실습, AI 활용 교육 특강 및 실습을 통하여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메타버스 및 AI 활용 교육 적용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연수생들은 연수를 통해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메타버스나 AI를 활용한 교육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교육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AI를 활용한 학습 진단 및 보정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의견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와 사회에서 기술 및 트렌드를 넘어 사람과 삶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교육의 방향을 고민하게 되었다는 의견을 주었으며, 연수 운영 전반 및 연수 프로그램에서 높은 만족도를 표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제도 안내 컨설팅 운영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에서는 지난 4월부터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 방문하여 학습경험인정제 제도 안내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학습경험인정제는 학생들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심의하여 그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인정받은 과목에 대해서는 수업과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고, 인정받은 과목이 많으면 최대 1년의 조기졸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을 통한 과목 이수 또는 조기졸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교사와 제도 운영에 관해 협의해 왔다. 학습경험인정제 제도 안내 컨설팅은 신청 학교(방송통신중학교 11개교, 방송통신고등학교 17개교)를 대상으로 9월 까지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중학교 찾아가는 ICT 교실 운영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에서는 방송통신중학교 신입생들의 ICT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찾아가는 ICT 교실」을 운영하였다. 「찾아가는 ICT 교실」은 전문 강사들이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ICT 기기의 기초 활용법과 방송통신중학교 사이버교육시스템에서의 학습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기본적인 컴퓨터 작동 방법, 윈도우 및 브라우저 사용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방송통신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사이버교육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을 원활히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이다. 교육은 전국 방송통신중학교 24개교 중 희망하는 18개교를 대상으로 진단조사와 컴퓨터 및 인터넷 이해, 방송통신중학교 홈페이지 이용, 스마트폰 활용의 3회차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참여한 학생들의 기초 ICT 활용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마지막 시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학생들은 원격수업 진행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의견과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U-반딧불

방송통신중·고등학교

2022

VOL. 96

기사제보

방송통신중학교 학생기자

주성중 유정숙 기자, 광주북성중 최지숙 기자, 구월여중 임영실 기자,
목포중앙여중 김이화 기자, 강릉중 김이안 기자, 원주중 김순자 기자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기자

전남여고 김순례 기자, 대전여고 박영범 기자,
원주고 박상숙 기자, 수성고 이양선 기자, 황지고 김명숙 기자,
동래고 조광흠 기자, 춘천고 최동순 기자, 청주고 조순희 기자,
홍성고 김배숙 기자, 전주여고 민경자 기자

방송통신중학교 재학생

원주중 김준기 학생, 원주중 김수영 학생, 원주중 김형규 학생

방송통신고등학교 재학생

원주고 김선화 학생, 원주고 유경춘 학생, 홍성고 이경옥 학생,
동래고 이복순 학생, 동래고 손병도 학생,
동래고 장재선 학생, 동래고 민영조 학생

뉴스레터 개발·기획

편집장 김경애(미래교육연구본부 본부장)

편집총괄 황은희(방송중·고운영센터 소장)

편집인 김수진, 김경수, 이윤지(이상 방송중·고운영센터 기획·홍보팀)

이외에 기사가 게재되진 않았지만 수고해주신 모든
2022학년도 방송중·고 51명 학생기자과 재학생 분들,
방송중·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